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40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만들레) 40 여유만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출한 이웃)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중계방송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신년기자회견 3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30 트트생활제 3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재)	10 KBC 생활뉴스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킬미 힐미)(재)	00 SBS12뉴스 45 닥터365 55 건강클리닉 55 날씨와 생활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크(재)	
2	50 직인직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3		00 바른말 고요말 05 우리말 겨루기(재)	45 2015 아시안컵 축구 -8중 예선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05 헬로키즈 키즈사이언스5 55 과학마술단
4	00 정응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4 10 생명최정현(재)	25 일일특보기행 (압구정 백야)(재)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통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갈때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신년기획,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을 꿈꾸다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관촬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결혼이야기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보기행 (압구정 백야)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비평 윤건희 더 콘서트	10 투명인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2	40 먹거리 X파일(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4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2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발칙한 사물 이야기, 다빈치 노트	35 MBC 뉴스 24 ①:05 나누면 행복



‘국제시장’ 관객 1000만명 돌파

윤제균 감독 ‘해운대’ 이어 연달아 성공

중장년층 추억과 공감 흥행 주도

이념 논쟁·대형 투자배급사의 힘도 한 몫

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이르면 13일 새해 첫 ‘천만 영화’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전날 전국 842개 상영관에서 관객 15만7464명을 추가하며 누적관객수 984만6988명을 기록했다. 1000만명까지 15만4천명 가량이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4일 오전 ‘천만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역대 한국 영화 중 11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14번째 ‘천만 영화’다.

‘해운대’(2009·1천145만) 이후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윤 감독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그것도 연달아 ‘천만 영화’ 2편을 내놓은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윤 감독은 그동안 ‘국제시장’에 대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만든 영화”라고 설명해 왔다.

“아버지에 대한 헌사”를 내건 영화답게 극중 가족을 위해 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덕수’(황정민 분)의 일대기는 아버지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중장년층을 극장으로 불러모았다. 윤인호 CJ E&M 홍보팀장은 “중장년층에게 ‘그때 나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지’라는 공감과 위로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영화는 20대에서 먼저 흥행을 한 뒤 40대 이상으로 관객층이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제시장’의 경우 초반부터 중장년층 관객이 많았다.

예매사이트 맥스무비에서도 40대 이상의 예매율이 47%에 달한다. 자녀 관객이 부모를 위해 예매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 이상의 비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CGV리서치센터에서 작년 한 해 CCTV를 찾은 관객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5세 이상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40.2%가 늘었을 정도로 최근 중장년층의 영화

관람 횟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며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시장’은 영화 내에서 묘사된 한국 근현대사의 모습 때문에 영화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다. 윤 감독 스스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인 시각으로 고생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비판적인 시선이 빠졌다”고 말했다. 영화는 덕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펼쳐놓는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가 분분한 사건이 가볍게 묘사되면서 오히려 이념 논쟁에 불을 댕겼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미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영화평론가 유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극 중 덕수는 과묵 광부 면접 과정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국가를 열창하기도 하고 베트남에 기술 근로자로 가기에 앞서 부인(김윤진)과 딸다툼을 하다가도 시간에 맞춰 들려오는 애국가 소리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윤 감독은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신”으로 ‘무겁지 않게’ 연출한 장면이라고 했지만 보수층은 이 장면을 예로 들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수 계층을 겨냥한 정치 영화’라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정치권은 “현대사에 대한 예술적 긍정” 등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국제시장’에 대해 혹평한 칼럼니스트 허지웅 씨의 발언을 두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지고 있다.

또한 총 제작비 140억원(마케팅비 등 포함하면 180억원)이 투입된 ‘국제시장’은 국내 투자배급사 1위인 CJ E&M이 투자·배급을 맡은 작품이다.

CJ E&M은 작년 여름 ‘명랑’(1천761만명)으로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데 이어 하반기에는 ‘국제시장’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국제시장’은 손익 분기점(600만명)을 전차 넘은데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만 767억원이 넘는다. ‘국제시장’의 흥행에는 극장 체인을 가진 대형 투자배급사의 힘도 한 몫했다.

정치적 영화평론가는 “‘국제시장’은 CJ가 작년 하반기에 가 장 공을 들인 영화이다보니 스크린을 충분히 잡고 시작했다”며 “CJ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영화 흥행에 주요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미생마이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견문록 이틀라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5 어린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00 시계마을 타키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책과 땅(재)	<일본의 맛을 찾아서, 규슈>	16:00 당동명 유치원(재)	<겨울왕국을 가다! 노르웨이>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겨울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EBS 초대석	16:35 원더볼츠	21:50 EBS 다크 프라임
08:20 보통보통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신년특집 교육대기행 공부 못하는 아이>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극한직업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3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35 세계전통극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7:30 로보카 폴리	<아시아 시장기행>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10 소프트웨어 놀자	17:45 보통보통 보로로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따개비 루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7:0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대비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05:40 <유중현, 윤선영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07:30 전철한 수학 익힘풀이 (6-2)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6:1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에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한국교육 드라마
07:40 <오연지의 영어>	14:50 <추해연의 영어>	08:30 검정고시 대비 강좌	<어린이 종합방화>
08:20 수능길잡이<문학>	15:40 2016 수능열기 <오연지의 영어>	09:10 중학예비과정 <국어①②>	17:20 백정균 수학수학3 <수학 ③>
08:30 <수학 I>	16:30 <유중현, 윤선영의 국어>	09:50 <국어③④>	18:00 중학예비과정 <영어 ③>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오광석의 수학 I>	10:30 <영어 I>	18:40 <영어 ②>
05:00 <영어특해 유형>	18:10 고등에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1:10 <수학①>	19:20 과학탐정단 시드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최은진의 수학 I>	11:50 <국어⑤⑥>	19:40 사이틴-백민아의 지구뉴스
07:30 <차현우의 미적분II>	20:00 <김소연의 수학II>	12:30 <영어②>	20:00 EBS 인문학특강
08:20 <구명석의 화학과 통계>	20:50 <추해연의 영어>	13:10 <수학②>	20:50 EBS 기획시리즈
09:10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길잡이	13:50 필독 중학 한국사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00 고등에비과정 <장동준의 국어>	<구명석의 화학과 통계>	14:30 중학 e포스 영어특해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도전 직업체험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22:40 <국어③④>
11:4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3:00 2016 수능개념 <추해연의 영어>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60년생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72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과감하게 전환해 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73, 01	午	42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54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지수를 하락 시킨다. 66년생 전혀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78년생 조건이 양호하니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8, 69
丑	49년생 성사 되는 쪽으로 가다가 접한다. 61년생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73년생 일부에 해당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85년생 가변적임을 감안하고 대처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2, 21	未	43년생 액뎌하는 셈 치면 속 편할 것이다. 55년생 제반사에 과감한 결단과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67년생 허접하고 여건만 반듯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형평성의 유지와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3, 07
寅	38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 50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62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니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한다. 74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86년생 마음의 문을 열자. 행운의 숫자 : 11, 30	申	44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높추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 56년생 피나 속상할 일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다 알게 되어 있으니 굳이 감추려 하지 마라. 80년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4, 80
卯	39년생 주저할 이유가 없다. 51년생 당일에 마무리 하라. 63년생 아까리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75년생 아무렇게 다 잡아야 할 시기이다. 87년생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삼가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7, 62	酉	45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57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69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81년생 진정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5, 42
辰	40년생 현재의 판세로 굳어지면 큰일 나게 되어 있으니 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년생 실력이 없다면 나설 이유가 없다. 64년생 희소식을 접하리라. 76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13	戌	46년생 먼저 실행하는 이의 것이 될 것이다. 58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허들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70년생 당황하지 마라. 82년생 직접적이라 하더라도 편에 얽매다보면 큰 안목을 놓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8, 50
巳	41년생 생기를 띠면서 발전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이룰 것이다. 53년생 폭 넓은 변수를 갖게 된다. 65년생 상호적인 관계에 신경 써라. 77년생 평소대로 마음먹고 있던 바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38, 32	亥	47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59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수습해야만 뒤따라 없다. 71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83년생 그 어떠한 새로운 일에도 꺼여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95, 7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이수만·한예슬 불법 외환 거래 ‘신고 누락’ 해명

해외 자산 취득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당국에 적발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이 13일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예슬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예슬이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상가 건물을 취득후 법인 소유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건물 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환불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말했다.

키이스트는 “해당 부동산 환불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이스트는 이어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보도되는 내용처럼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키이스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관련 통지가 오는 대로 총실 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도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와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SM은 이어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효린 ‘나는 가수다’ 시즌 3 출연

다양한 뮤지션으로 라인업 구성-21일 첫 녹화

씨스타의 효린(사진)이 MBC ‘나는 가수다’의 시즌3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가 13일 밝혔다.

지난해 ‘나는 가수다’의 추석 특집에 출연한 효린은 오는 30일 밤 10시 처음 방송하는 ‘단소그림’에서 다시 한번 선후배 가수들과 가창력 대결을 펼치게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효린이 지난 추석 특집에 참여하며 선배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서는 값진 경험을 했다”며 “효린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솔로 앨범 경험이 있는 만큼 다양한 편곡과 무대 연출로 씨스타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모습을 선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첫 녹화를 하는 ‘나는 가수다’의 출연진은 현재 제작진이 합구하고 있는 상태다. 효린이 유일한 아이돌 가수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제작진은 ‘나 가수’ 출연진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뮤지션들로 라인업이 구성됐다”며 “출연하는 뮤지션이 음악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